



KWC 2020에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음에도 아직 수입이 되지 않아 한국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와인이 있다. 주목같은 미수입 와인이 하루빨리 한국 시장에 들어오길 바라면서 KWC 2020 미수입 와인들을 소개한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장영수



칸띠네 무치

발렌티노 무치(Valentino Mucci)와 아우렐리아(Aurelia)가 운영하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1985년에 설립되었다. 이탈리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아브루쥬에 자리 잡고 있다. 열정과 사랑을 담아 와인을 빚기에 그만큼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며 최신 양조 기술과 병입 설비를 갖추고 있어 효율성도 겸비하고 있다.



Cantine Mucci Cantico Montepulciano d'Abruzzo DOC

몬테풀치아노 100%로 빚은 와인이다. 강렬한 루비색을 띠며 체리, 블랙 베리, 감초의 힌트가 있다. 프렌치 오크통에서 약 12~13개월간 숙성 시켜 우아한 풍미를 자랑한다. 파스타, 육류 및 생선 요리, 숙성된 치즈와 마리아주가 좋다.



Marques de Riscal Rueda Verdejo
마르케스 데 리스칼 루에다 베르데호



라 셀리아

라 셀리아 와이너리는 설립자 유지니오 부스토스(Eugenio Bustos)에 의해 1890년에 설립되었다. 아르헨티나 멘도자 우코 밸리에서 자리 잡고 있다. 2000년에 칠레와 아르헨티나 와인 사업의 선두 기업인 비냐 산 페드로 타라파카 와인 그룹(VSPT Wine Group)에 인수되어 큰 서포트를 받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La Celia Pioneer Chardonnay

밝은 노란색을 띠며 강렬한 열대 과일 향과 미네랄리티, 코코넛, 아몬드 향이 입안을 꽉 채운다. 해발 1,050m에서 재배한 샤르도네 100%로 빚어 신선하고 우아하다. 균형 잡힌 산도가 마무리까지 길게 이어진다.



La Celia Pioneer Cabernet Franc

우코 밸리의 해발 1,050m에서 재배한 까베르네 프랑 100%로 빚었다. 잘 익은 다크 체리, 블랙베리의 과실 향과 스파이시한 향이 복잡하게 어우러진다. 매끄러운 질감과 달콤한 탄닌, 우아하게 마무리되는 끝맛이 매력적이다.

miles from nowhere MARGARET RIVER

마일즈 프롬 노웨어

마일즈 프롬 노웨어 와이너리는 서부 호주의 청정 지역인 마가렛 리버에 있다. 와인 메이커 프레드릭 페린(Frederique Perrin)의 리드 아래 섬세하고 복잡한 풍미를 가진 와인을 빚는다. 그들은 마가렛 리버의 테루아를 와인에 그대로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연구한다. 대표적인 와인으로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샤르도네가 있다.



Best Blocks Miles From Nowhere Chardonnay

신선한 감귤류와 백도, 살구, 천도복숭아의 과실 향과 아몬드, 헤이즐넛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약 12개월의 오크 숙성을 거쳐 더욱더 부드럽다. 기분 좋은 산도와 단단한 구조감이 마무리로 이어진다. 크리미한 해산물이나 버섯 리조토와 페어링하면 좋다.

SIGNOS
BODEGAS CALLIA



MALBEC

미래를 예언하는 게시 'Signos'는 앞으로 닥칠액운을 미리 잠재우는 의식이자 부적을 의미한다.

말백 100%, Alc.



SIGNOS
MALBEC